

# 네덜란드의 근대집합주택-01

## Dutch Modern Housings

어느 나라보다 공동체 인식의 바탕에 형성된 네덜란드 집합주택은 엄격한 가톨릭 정신과 자연을 극복해야만 하는 절박한 운명이 네덜란드인을 하나로 묶으면서 동시에 집합주택이 도시미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네덜란드인의 기본정신 위에 발전된 집합주택은 이념을 달리하는 다양한 건축운동, 건축가의 의지와 실험정신 그리고 예술가와 건축가의 협력 등이 모태가 되어 생성되었다. 필자가 몇 번에 걸쳐 연재할 흐린베르흐(Donald I. Grinberg)의 저서, 'Housing in the Netherlands 1900~1940' (Delft University Press/1982)을 통하여 네덜란드 근대집합주택을 '근대' 라는 기능적이고 합리적인 시점만이 아닌 도시미와 커뮤니티 그리고 선단적인 집합주거 공간을 파악하는 주요한 단서로서 기대하고자 한다. <필자 주>

| 목                                   | 차 |
|-------------------------------------|---|
| 01_역자서문/첫머리에/산업혁명 이전의 주거상황/산업화와 도시화 |   |
| 02_1900년 이전의 주택공급과 주거환경             |   |
| 03_1902년에 제정된 주택법/카미로 지테의 영향        |   |
| 04_건축가의 새로운 역할                      |   |
| 05_전원도시의 전통                         |   |
| 06_집합성과 공유공간                        |   |
| 07_표준화                              |   |
| 08_이데오르기(목적과 수단)/공간의 새로운 개념         |   |
| 09_공간의 개방성:고층화/결론                   |   |

## 역사서문

아파트(apt)는 우리를 생활에 가장 중심을 이루고 있는 용어로서 언제부터인가 삶의 본거지로 재테크의 산물처럼 되어 버렸다. 아파트 규모에 따라 부(富)의 크기를 재는 척도가 되고, 또한 어느 지역의 아파트에 사는가에 따라 능력의 상징처럼 보여져 왔다.

이와 같이 아파트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로 아파트먼트 하우스(apartment house)가 줄어들어서 만들어졌으나 상용화되기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아파트는 건축법적으로 공동주택에 속하며, 여기에는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아파트 등이 있다. 여기서 면적에 관계없이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아파트로 정의내리고 있다.

공동주택의 '공동(共同, community)'이란 용어는 면적이나 층수에 관계없이 마을 공동체의 형태에서 전이된 전통적 '모여살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 생활에서 '모여살기' 본래의 의미는 상실되고 구조물이 집합된 공간에서 거주할 뿐이다. 즉, 개체(個體)가 모여 집합(集合, collectivity)을 이루고 있다고 하여 '집합주택'이라고도 한다.

영국에서 발생한 산업혁명은 유럽 각국에 파급되고, 1850년 이후 여러 번의 만국박람회를 계기로, 일터를 찾기 위해 농촌에서 도시로 몰려드는 사람들로 주거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당시 영국은 물론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주자들에게 대한 주거공간이 해결되지 못한 채 많은 사람들이 지하실에 기거하고 심지어 돼지 등의 동물들과 함께 지내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그 만큼 심각한 주거공간의 부족은 인간의 건강에 문제가 대두되면서 정부가 직접 개입하게 된다. 이런 사회적인 문제와 더불어 건축가는 주거공간에 대한 새로운 과제를 떠 안게 되었다.

주거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접근으로 집합주택이 하나의 대안이 되었으나, 전통적 마을 공동체의 수평적 관계에서 집

합화된 공간의 수직적 확장으로 인하여 커뮤니티와 위생 등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었다.

1902년 네덜란드에서 시행된 주택법은 오르지 이윤만을 추구하는 개발업자들의 횡포를 차단하고, 집합주택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서 뒤이은 건축가의 집합적 공간에서 커뮤니티 실험은 다양한 건축운동의 발생과 더불어 건축가의 사회적 역할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1920년 전후부터 유럽의 각국에서 집합주택의 중요성이 서서히 강조되고, 이를 국가간의 문제로 접근하게 된 것이 1927년 슈트루가르트에서 개최된 집합주택 전시회를 들 수 있다. 2년 후인 1929년 CIAM 제2차 회의에서는 '최소한의 주택'이라는 테마를 갖고 주거공간의 적정화를 발견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제안되었다.

집합주택을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하게 된 나라가 바로 네덜란드이다. 일찍부터 건축가를 시공무원으로 채용하고 노동자를 위한 집합주택을 설계경기를 통하여 진행하였다. 네덜란드 근대 건축가들은 이런 현실적인 문제인식과 더불어 거주공간을 단지 주거를 위한 기능적 수단만이 아닌 도시적 측면에서 건축물이 갖는 미적 요소를 중요시하는 동시에 집합주택에서의 커뮤니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다양한 실험을 통하여 접근하였다. 바르나우(A.J. Barnouw)는 '근대 네덜란드의 형성' (1948)에서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각 개인생활을 엮어 공동의 단위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것은 네덜란드인의 역량이 공동체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들 스스로 정한 규율을 엄격하게 지키고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모두가 동의함으로써 협동심이 생겨나는 것이다.*

도시는 기념비적 공공건축물이나 우뚝 솟은 초고층건물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

다. 이런 건물들은 하나의 점으로써 표현될 뿐 대부분의 가로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주거건축이며, 이는 도시 형성의 바탕이 되고 있다. 그만큼 집합주택은 현재나 다가올 미래의 주거공간으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할 것이고, 또한 도시 전체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축이며 더불어 도시의 생명력을 잉태하는 요소-단일 건물이 도시전체를 리드하기 보다는 하나 하나의 건물이 조화를 이룬 전체의 각부분을 구성하여 도시전체가 하나의 복합체-라는 인식은 네덜란드인의 기본적인 정신인 것이다.

## 첫머리에

젊은이들은 오로지 앞서 이룩한 과업을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 이것은 베를라헤에 의해 이미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여진다. 건축의 역사적 발전에 있어서 베를라헤의 중요성은 새로운 건축의 요소적 구성을 지각하기 시작한 데에 있다. 암스테르담은 베를라헤의 신념에 따르지 못하였는데, 이는 암스테르담이 감정적이고 낭만적인 과정에 치우쳐 새로운 발견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근대의 혼란에 빠져 있었던 것에 기인하고 있다. 단순한 것을 단지 집합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최근의 분석에 의하면 개인주의적 잔재라는 것에 별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나는 로테르담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우드와 그와 맥락을 같이하는 그룹들이 전략적으로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그로피우스에 의하면 아우드의 건축은 기능적인 반면 암스테르담 건축은 상당히 다이내믹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성격이 다른 두 조류의 통합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네덜란드에서는 무리인 것 같다. 로테르담은 분석을 통한 이성(reason)을 가장 중요시한 반면 암스테르담은 직감을 통한 비이성(unreason)을 중요시하였다. 분석적인 로테르담은 환상

을 거부하였다. 환상적인 암스테르담은 로테르담의 분석적인 객관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건축에서 중요한 요소는 기능이라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관능적인 면이 결여된 기능은 단지 구축에 지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은 두 조류에 대한 문제를 조정(reconciliation)하는 것이 나의 임무라고 생각한다. 이 두 조류는 모두 필요한 것이고, 또한 서로에게 눈을 돌려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암스테르담이 합리성(ratio)을 향하여 한 발 한 발 내딛고, 또한 로테르담이 유연성을 갖는다면 두 조류는 통합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렇지 않으면 두 조류는 파멸되고 말 것이다. 로테르담은 죽을 정도의 냉혹한 특성으로, 그리고 암스테르담은 스스로 다이내믹한 화염(火焔)에 의해서, (1923년 8월 18일/멘델 존이 부인에게 보낸 편지내용)

1923년, 멘델존은 자기 부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암스테르담 건축과 로테르담 건축과의 차이점에 관한 견해를 피력했는데, 그는 당시 몇 개의 혁신적인 집합주택 계획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본서에서는 바로 이런 집합주택의 현상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고 멘델존이 정의 내린 두 조류의 전개과정과 그 영향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멘델존이 어떠한 조정과정을 거쳤는지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네덜란드 집합주택 이념과 그 실천과정을 고찰함으로써 명확하게 밝혀질 것으로 보이나 암스테르담과 로테르담과의 대립적 구도에 대한 판단은 그렇게 간단히 귀결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멘델존은 암스테르담파(Amsterdam School)의 표현주의적 건축에 대한 아우드와 그 추종자들의 비판은 지금부터 6년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암스테르담파의 영향은 1923

년을 기점으로 쇠퇴한다. 바꾸어 말하면 1923년은 암스테르담에서 활동한 가장 우수한 건축가였던 끌러크가 작고한 해인 동시에 만하임 미술관(Mannheim Art-Gallery)의 관장인 하르트럽(G.F.Hartlaub)이 처음으로 신즉물주의(New Objectivity)라는 용어를 사용한 해이기도 하다. 신즉물주의라는 용어는 본래, 포스트 표현주의에서의 객관적 회화(objective painting)나 그래픽을 위한 전시회 테마로 사용된 것으로 결국은 모든 감정을 배제한 정신적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sup>1)</sup>. 멘델존과 아우드의 사고로부터, 이 용어가 쉽게 건축의 분야로 확산되어가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네덜란드어인 Nieuwe Zakelijkheid(신즉물주의의 의미-역주)로 전이되어가는 것도 쉽게 인지되고 있다.

1926년 멘델존은 신즉물주의가 건축으로 이입되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의 특성을 로테르담의 분석적 객관성(analytic objectivity)에 비유하고 있다. 여기서 신즉물주의라고 하는 용어는 니우버 바우웬(Nieuwe Bouwen, '새로운 건축'이라는 의미-역주)에 관련한 건축가들을 가리키고 있지만, 이것은 1920~30년대 건축의 급진적이고 형태적인 측면이나 상징적 양상의 접근으로부터 탈피를 의미하고 있다.

암스테르담과 로테르담의 대립구도 양상은 멘델존은 물론 후세의 많은 비평가들로부터 지적 받아 왔는데, 이는 1900년부터 1940년에 걸친 네덜란드 건축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었다. 이것은 특히, 하우스링(housing, 이하 '집합주택'으로 해석-역주)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도시는 합리주의에 점령된 것도 아니고 형태로 충만된 것도 아니다. 아마도 네덜란드 건축가들은 1920년대 이후 그들 스스로 인식하고 있던 정치적 환경으

로부터 두 도시간의 차이를 자주 거론하기도 했을 것이다. 이런 환경은 특히 독일 및 소련의 발전에서 오는 영향으로 건축적 형태와 정치적 위치를 연관 지우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었다. 암스테르담과 로테르담에서 집합주택을 설계하는 건축가들은 베를라헤가 이룬 건축, 강연, 저서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있었다. 특히 베를라헤의 업적으로부터 네덜란드 근대건축을 논할 때, 모든 면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공간을 한정짓는 벽면의 단순화된 미학 개념에 대한 공헌과 건축의 모달리스트로서의 역할에 중점을 두는 것만으로 베를라헤가 네덜란드에서 집합주택의 전통과 1920~30년대의 혁신성 사이에 가교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이해는 충분치 않다고 본다. 본서에서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베를라헤가 전통과 혁신사이의 과도기에 존재했었다는 점과 1920~30년대 네덜란드 집합주택의 실험성내지 혁신성으로 고려되어온 것이 더 스타일의 비판에 선행하여 존재했었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한다.

이런 고찰을 통하여 명확하게 밝힘으로서 기능주의의 공헌에 대한 독자성을 옹호하는 측면에 대해 명백하게 수정하고자 하는 것이 본서의 목표이다. 본서의 최대의 과제인 집합주택의 폐쇄형 배치계획으로부터 개방형 배치계획으로의 전개과정은 네덜란드 국내에 한정된 것만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네덜란드의 공헌은 오랫동안 해외에서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했다. 이것은 르 꼬르뷔제를 둘러싼 신화(神話)와 네덜란드어라고 하는 언어적 특수성에 기인한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네덜란드는 집합주택의 건설에 깊은 흥미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1902년 주택법이 시행됨으로써 생긴 커다란 변화와 제1차 세계대전 이전에 주택법의 지원을 받아 건설된 집합주택의 방

1) Oskar Beyer, ed., Eric Mendelsohn: Letters of an Architect (London, 1967), pp.59-60  
2) Fritz Schmalenbach, The Term Neue Sachlichkeit, Art Bulletin, 22, No.3(1940), pp.161-165

향성은 단순하고 과거의 것을 답습하는 데 지나지 않았다. 더욱이 네덜란드 공업화의 지연은 도시와 기술의 수동적인 발전에 의한 것이다. 이와 같이 적극적이고 낙천적인 태도는 1917년 더 스테일 결성 전후로 발생한 개혁의 본질이 되었다. 본서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많은 집합주택은 오늘날까지 흥미를 끌고 선진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다. 이와 같은 선진성과 관련된 네덜란드의 전통과 혁신의 긍정적 인 양상뿐만 아니라 해외로부터의 영향을 통합화하는 과정도 밝히고 싶다. 네덜란드 이외의 나라에서 네덜란드 건축가, 도시계획가, 주택공무원들의 관심은 이념을 통합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 되었다. 그러나 멘델존이 지적한 합리주의와 다이내믹한 통합은 제2차 세계 대전 이전에는 건축가들의 목표가 되는 일은 거의 없었다. 더욱이 건축에 대한 상반된 두 가지 조류의 통합을 시도한 건축가와 네덜란드 주택건축에 중대한 공헌을 한 건축가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불행하게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건설된 집합주택의 거의 모든 사례에 있어서도 전통과 혁신은 서로 배타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 제1장. 산업혁명 이전의 주거상황

외국인에 있어 네덜란드라는 국가적 이미지는 변함없이, 풍차, 나무로 만든 신발, 광대한 툴립 밭, 그리고 장엄한 시민주택(burgher houses) 등으로 현실성과는 거리가 먼 것들이다. 네덜란드를 기술할 때, 자주 거론하게 되는 것은 산업혁명 이전의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네덜란드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성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집합주택에 대한 네덜란드 가치의 지속성과 변형성을 통해서 명확하

게 들여다 볼 수 있다. 또한 지리적 영향은 지적이고 실천적인 영향과는 구별되어야 하는데 네덜란드 본질과는 거리감이 있다.

#### 1. 공간의 개방성

산업혁명 이후에도 그 이전과 마찬가지로 네덜란드 도시지역은 건설 가능한 토지의 부족과 더불어 택지 조성의 필요성이 동시에 대두되면서 조밀하게 건물들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19세기와 비교하여 볼 때 산업혁명 이전의 네덜란드 도시지역은 놀랄 만하게 넓은 녹지대를 갖고 있었다. 이런 녹지는 공공 장소보다는 개인주택을 배경으로 형성된 것이다. 도심지의 거주자들은 토지에 대한 강한 애착을 갖고 있었으며, 여기에서 재배하는 야채와 과일, 그리고 가축의 사육은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이와 같이 옥외활동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집합주택들은 건물 뒤쪽으로 좁고 긴 형태의 내부공간을 갖게 되었다<sup>3)</sup>.

말할 나위도 없이 대지는 집약적으로 이용되지 못하였다. 대지는 테르펜(terpen, 언덕의 의미-역주)이나 제방 위 혹은 매립지 위에 조성되고, 그리고 경제적 수단이나 물리적 간결성이 많은 노동자들의 요구로 확보되었다. 인구의 고밀도라든가 산업혁명 이전의 물리적 간결성은 도시화와 주택투기로 인한 공간 부족과는 구별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sup>4)</sup>. 19세기의 폐소(閉所) 공포증적 어려움(claustrophobic squalor)과는 대조적으로 '중세도시, 특히 방위에 전념할 필요가 없던 도시는 전체가 놀라울 정도로 넓고 게다가 위생적이었다'는 것이다<sup>5)</sup>. 이런 사실을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활동한 보수적이고 혁신적인 개혁주의자들 모두가 높게 평가하고 있는 여러 이유 중에서 하나일 뿐이다.

#### 2. 도시와 농촌의 대립

오래 전부터 목재파일 기초의 필요성 및 이로 인해 일정한 수위(水位)를 유지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라고 축약함-역주) 사이의 협력이 요구되어 온 지리적 환경은 계획적 토지이용이라는 강한 전통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게다가 도시의 수평적 확장이 요구되고 있었기 때문에 계획이라고 하는 행위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었다. 상업지구에서의 조닝계획은 17세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였다. 이 시기의 경제적 성공은 많은 중소 도시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같은 도심지에서의 상업적 특성과 독특한 지리적 환경, 자율적인 자치단의 전통이 이미 존재하였다. 이런 행위가 자연스럽게 자치단체의 업무로 인식하게 되었다. 네덜란드의 항해술 발전은 국가번영의 기초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측량과 지도제작에도 영향을 주었고, 크게는 토지이용계획에도 응용되었다. 부(富)의 집중이 네덜란드 서부 지역인 남부 네덜란드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프랑스로부터 영국과 같이 대도시로의 발전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미 도시에서 형성된 개방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도시와 농촌의 대립적 경향은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조밀한 주거지는 목초지와 운하 위로 딱 트인 넓고 개방적인 조망과는 대조적이었다. 도심지의 바닥은 대부분 포장되고 시야는 차단되어 있었다. 평탄한 풍경과 완전히 차단된 인공적 도시와는 강한 대립적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다.

네덜란드어로 폐쇄된 상태를 헤스로텐하이드(geslotenheid)라고 하는데, 이것은 20세기 이전부터 전통적으로 호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다. 이런 분위기는 17세기 델프트(Delft)지역을 대상으로 시민의 일상생활을 그린 베르메이어(Vermeer)의 풍경화에서도

3) Gerald L. Burke, The Making of Dutch Towns, A Study of Urban Development from the Tenth to the Seventeenth Centuries (London, 1956), p.157

4) Burke, p.156.

5) Catherine Bauer, Modern Housing (Boston, 1934), p.6

볼 수 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베를라헤 등의 건축가들은<sup>6)</sup> 카미로 지테(Camillo Sitte)의 사상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헤스로 띠하이드는 단순한 미학적성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으나 심리적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도시가 외부로 노출되는 것에 대한 방어적 성격으로부터 나타났다고 하겠다.

아무리 인간의 손에 의하여 구축된 대지라고 하여도 도시와 농촌의 대립은 20세기에 전개된 도덕적이고 지적인 운동에 대해서 중요한 심리적 배경을 가져오게 하였다. 네덜란드의 물리적 특수성은 더 스테일 운동이나 전원도시 운동과 같이 다양한 방어적 입장에서 자극을 받게 되었다. 더 스테일의 창시자인 두스부르르는 1926년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비행기에서의 관찰이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확인시켜 주듯이 인간정신과 자연사이의 방법에서도 커다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어떠한 경우라도 인간정신은 도시에서와 마찬가지로 전혀 다른 질서가 침투하여 조정되고 있다. 이런 질서는 완전히 다른 법칙에 바탕을 두면서 전혀 다른 형태, 색채, 선, 그리고 긴장감으로 표현되고 있다. 도시가 농촌에 대한 관계성과 마찬가지로 대등한 적대감내지 대립성은 인간정신의 구조가 자연구조에 대한 관계성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인간정신은 자연에 대하여 필연적으로 적대적이다(아무리 모순되더라도). 이중성이 필연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sup>7)</sup>

그러나 전원도시 운동의 제창자인 모리에(Granpre Moliere)는 조화된 통일성을 지각하기 위해, 자연과 인간의 이원론 안에서 인간정신의 원천이 발견된다고 보았다. 전통적인 델프트파(Delftse School)와 마찬가지로 신즉물주의(Nieuwe Zakelijkheid)에서 자연

을 과거와 낭만주의와 관련짓고, 또한 도시는 이와 대립적으로 합리주의와 미래를 제시하고 있었다.

### 3. 가로와 주택

몇 가지 사례를 예외로 하더라도 19세기 이전에 폐쇄형 주동배치계획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주택들은 건축이 가능한 가로변을 따라 주로 건설되었다. 도로의 교차로에서도 주동의 연속성은 기본적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이것은 한 번 끊어졌다가 도로 반대편에서 다시 이어지고 있다. 이것은 때로 도로가 제방 위에 건설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극도의 노동집약형이 요구되었다. 이렇게 계획되어진 집합주택의 정면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어진 도로의 길이에서 가구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세대당 정면 폭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도로변에 면해 있는 주택들은 정면 폭이 좁은 대신 건물의 뒤쪽으로 길게 형성되었다. 또한 기초파일의 건축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둥은 조적벽을 공유하기도 하였다.<sup>8)</sup>

네덜란드는 위도상 북쪽에 위치한 나라보다 햇빛이 많이 요구되어, 구조적으로 그다지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건물의 정면이나 배면에 가능한 한 커다란 창문을 설치하여 빛을 실내로 유입되도록 하였다. 17세기부터 18세기에 걸쳐 지어진 시민주택(그림)은 낮 동안의 햇빛을 적절하게 잘 이용하여 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덧문과 유리의 조합으로 높은 곳과 낮은 곳에 적절하게 빛을 유입시키고 집중광과 확산광으로 서로 다른 빛의 밝기를 얻을 수 있었다. 17세기 회화에 나타난 실내 풍경은 이러한 다양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sup>9)</sup>

그러나 유리창은 단순한 인테리어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 주택에 관한 지방세의 일부가 유리 사용량에 기초하여 책정되었고, 또한 주택에서 창의 면적이 크고 작음에 따라 부와 지위를 나타내곤 하였다. 따라서 17세기의 경제적 성공은 도로에 면한 창문의 크기와 개수에 따라서 정해지곤 하였다. 주택은 정면 폭과 비교하여 뒤쪽으로 현저하게 길어진 형태로 거리를 따라 지은 나열식 주택의 평면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주택 내부 깊숙이 햇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안쪽에 위치한 작은 방의 폭보다 높은 천장을 갖게 하였다. 이런 사실은 커다란 창문이 주는 의미와 더불어 도로 쪽에 면한 방을 모이카머(mooie kamer, 아름다운 방이라는 의미)로 인식하게 되고 더불어 가정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곤 하였다. 브루주아 계급의 명성과 자존심에 대한 이미지의 공헌자로서 똑같이 평가를 받게 된 것은 유럽에서 발전한 건축 형태 언어에 있었으나, 이것은 네덜란드 벽돌 건축에 대한 전통적 범주에 적용되면서 수정을 보게 되었다. 이런 형태 시스템은 거대한 바로크식 케이블(baroque cable)에서 고전주의적 몰딩과 디테일에 이르기까지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시각적 특징은 경쟁심을 위한 기준이 되어 네덜란드 전역에 걸쳐 유행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암스테르담에서 운하를 따라 양쪽에 줄지어 서 있는 바로크식 케이블의 단순성은 농촌주택



그림 1. 암스테르담 라이드세 운하 주변에 있는 시민주택, 17-18세기경 도시의 빈민들은 허름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택의 수창고 등에서 살았다. 운하를 따라 건설된 시민주택(canal housing)에서의 공간적 개방감은 다른 지역에서는 느낄 수 없지만, 이런 빈곤층 주택의 상징성은 시민주택의 모델이 되고 있다. 20세기 건축가에 의해서 모색된 집합성 이미지는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6) 예를 들면, 크롬하르트(W. Kromhout)의 *Arbeiders Woningen in Nederland* (Rotterdam, 1921), p. xiv.

여기서 그는 도시와 마을의 확장에 관한 토론에서 폐쇄성(Afgeslotenheid)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7) The van Doesburg, *Schilderkunst: Van kompositie tot contra-kompositie*, *De Stijl*, III, No. 73/74(1962), pp. 24-25

8) Steen Eiler Rasmussen, *The Dutch Contribution*, *Town Planning Review*, 24, No. 3(1953), p. 163

9) Ibid. 이것은 라무스센(Rasmussen)의 주요 공격 대상이다.

과 도시의 가로변에 건설된 소규모 건축물의 파사드에도 잘 나타나 있다(그림 2, 3).

유럽의 여러 나라와 비교하여 보면, 르네상스나 바로크식 건축양식에서 볼 수 있는 지나친 예술적 표현은 네덜란드 국내에서는 그다지 성행하지 못하였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초기 자본주의, 특히 개인 자신에 대한 표현이었다. 주택의 각세대는 잘 정리된 거리와 디테일하게 제한된 집합적 전체의 범주에서 그 자체의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었다. 한편으로 주택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었지만 세대당 건축물의 폭은 몇 미터에 불과하고, 또 한편으로 큰 규모의 도시 구성요소인 운하가 개인과 공공의 관계를 공생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지속적인 관련 구조를 제공하고 있는 셈이 되었다. 그 밖의 요소에 대한 관찰은 본서에서 밝혀야 하는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이다.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상인들은 주택을 점포와 독립시켜 분리하는 것을 꺼려하여 건물매스의 거대한 섬유조직의 일부로서 접근하게 되었는데, 이는 카미로 지테의 영향과 대량생산방식이 대두되기 이전부터 이미 상식적인 일이 되어 있었다. 영국이나 독일의 귀족은 도시의 성격을 창출하는데 기여하였으나 네덜란드 귀족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가끔 시민주택의 건축어휘가 명확하지 못하여 가로에 면

한 파사드만으로 건물내부를 충분히 논할 수 없는 결과를 만들었다<sup>10)</sup>.

18세기 건축형태의 외관상의 의미에서 보면 파사드의 규칙성과 반복성은 네덜란드 국내보다 해외에서 잘 도입이 되고 있었다. 큰 거리(avenue)는 가로수와 위풍당당한 파사드로 채워져 있고 비인간적인 파사드의 내면에는 호화로운 삶이 영위되고 있는지 아니면 넓은 정원이 있는지, 또는 산책로는 만들어져 있는지 도저히 실마리를 찾을 수 없었다. 문화의 전체성에서 형성하는 건축형태의 시스템과 대조적으로 네덜란드 건축가들은 20세기 초 수 십년에 걸쳐 유일한 계급인 노동자들을 특별히 상징화하여 새로운 건축언어를 창조하는데 전념하였다.

#### 4. 중정으로서의 호훼

폐쇄된 공간(enclosed space, '중정을 갖는 주택 형식'을 말함-역주)을 의도적으로 만든 산업혁명 이전의 주택형식을 호훼(hofje)라고 불렀다. 네덜란드어로 호호(hof)라는 말은 정원(e.g., 에덴의 정원)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어 왔다. 여기에 영어의 코트(court)라는 말이 갖는 공간성(spatial), 공평성(judicial), 애정성(amorous meanings) 등의 풍부한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sup>11)</sup>.

그러나, -je라고 하는 접미어가 붙은 호훼(hofje)라고 하는 말은 그 의미가 극히 한

정되고, 13세기 초기부터 형성되어온 고아나 노인을 위한 박애적, 종교적 빈민구원 단체를 의미하고 있다. 이런 시설에서 다양한 외부공간의 접근은 기능적, 상징적 중심이 되는 중정에 면하여 설계되었다. 몇몇 커다란 호훼는 자율적이면서 외부의 침입자에 대한 방어적 기능으로서 '울타리(enclosure)'라는 것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이런 호훼는 부유층이 빈민을 위하여 제공한 최초의 주택 사례로 19세기 노동자 계급을 수용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 중에서 가족주의는 노동자의 작업이 깨지지 않는 전통으로서 계속 이어져 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호훼는 가끔 노동자들이 만든 관리위원회의 상징으로서 그들의 역할을 반영하고 분위기를 표출하는 것이 되었다. 한때, 프란스 하레 미술관(Frans Hale Museum) 1층의 대규모 공간을 노인을 위한 호훼, 그리고 감독 및 관리인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어 왔다. 이들의 보호를 받고 있던 노인들은 간소하고 협소한 윗층에서 생활하고 있었다.<sup>12)</sup>

호훼에서 찾을 수 있는 내부세계의 감각은, 지금까지 도시와 관련하여 논해온 것과 병행하여 공간적 폐쇄성(spatial enclosure)이 장소성(spaciousness)을 배제하지는 못하였다. 내부와 외부의 이중감각, 그리고 우물내지 양식 정원이 주는 상징적 중심성은 20세기 노동자용 주택에 공유정원이 설치됨으로써 재해석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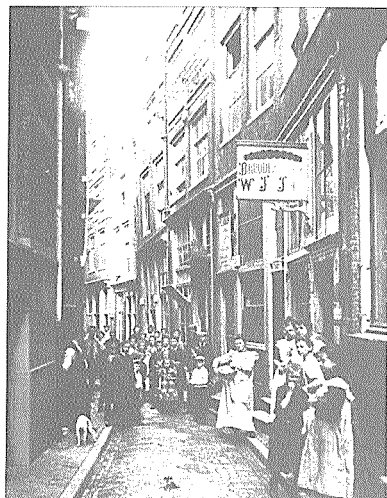


그림 2. 시민주택의 전경, 암스테르담 중심부, 18세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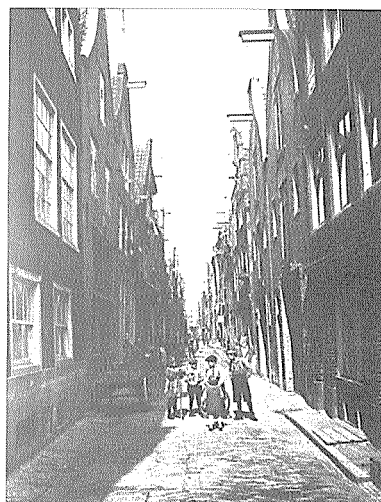


그림 3. 시민주택의 전경, 암스테르담 중심부, 18세기경

## 제2장. 산업화와 도시화

네덜란드에서 공업화를 향한 실험적 시도는 윌리엄 1세가 권력을 잡은 1813년경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프랑스 통치하의 네덜란드

10) Bauer, p.4

11) Audrey M. Lamnert, The Making of the Dutch Landscape (London, 1971), p.182

12) Lambert, p.182

의 경제적 사정은 불황이 계속되어 최악의 상태였다.<sup>13)</sup> 영국에서 교육받은 윌리엄 1세는 유럽에서 가장 발전한 영국 공업화의 성장과정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었다. 그는 특히 도로, 운하, 항만시설 등의 정비라고 하는 하부구조를 근대화하는데 주력했다. 그러나 19세기 전반, 네덜란드 국내 산업은 여전히 부진하였다. 1870년대까지 네덜란드에서 근대 자본주의를 찾아 볼 수 없었다. 자본 투자는 네덜란드 국내 생산의 재조직화를 향한 직접적인 투자가 아니고 오히려 영국이나 벨기에와 같이 이미 산업화가 된 나라에서 즉시 이익이 될만한 분야에 투입되었다.<sup>14)</sup>

17세기의 풍부한 부의 원천이 무역에 있었던듯이 1824년 무역협회 설립을 기회로 금융투자가 직접 해외로 진출하는 것이 보장되었는데, 이는 네덜란드 국내 경제에 미묘한 구조적 변화를 가져왔다. 비록 증기생산 기계장치가 1787년<sup>15)</sup> 초기에는 간척지의 배수용으로 사용되다가 1800년 초기에는 제분용으로 사용되기도 했지만,<sup>16)</sup> 당시 네덜란드 산업은 중세의 수공업적 성격이 강하여 기술발전에는 무관심하여 비교적 영향을 받지 않았다. 1839년 네덜란드에서 최초로 철도가 개통이 되었으나, 이는 암스테르담과 할렘 사이를 운행하는 여행을 위한 철도였다. 증기기관차가 개통되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철도는 1870년경<sup>17)</sup> 철도망이 확충되고 화물수송이 이루어질 때까지 경제적 구조에 커다란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1869년 수에즈 운하의 개통은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고, 그 결과 대륙 간 무역에 커다란 변화를 보였다. 그러나, 해외무역에 대한 가능성은 쉰이더제이(Zuyderzee)해를 통하는 것보다는 암스테르담과 북해 사이를 연결하는 것이

더 절실히 요구되고 있었다.

1876년 북해 운하의 개통은 암스테르담 미래의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로테르담은 항만시설이 개선되어 독일의 루르(Ruhr) 공업지대와 북해를 연결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루르 공업지대의 산업화는 네덜란드에 철강을 공급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로테르담 조선업계에 다시 한번 활력을 불어넣는 자극제가 되었다. 이로 인하여 독일과의 경제교류가 문화교류까지 확대되었고 나아가 네덜란드의 주택산업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네덜란드에서 대규모 섬유산업이 시작된 것은 1830년경부터이다. 그러나 좀더 중요한 변화는 증기기관차가 광범위하게 이용되기 시작한 1860년경부터 일어났다. 아인스헤더(Enschede)는 섬유산업의 중요한 중심지이고 알메로(Almelo)는 남성용 기성복을 만든 메카였다. 그리고 헹헤로(Hengelo)는 금속공업의 중심지가 되었다. 헹헤로는 스토르크(Stork)형제에 의해서 강가의 철도 분기점으로 개발되었다. 이들 형제의 회사는 염료, 봉제, 방직 그리고 주물에 관련된 분야를 다루고 있었다. 이 회사는 급속도로 발전하여 성공을 이루었으나, 한편으로는 노동자의 수급문제와 그들을 위한 주택부족을 초래하였다<sup>18)</sup>. 따라서 이런 상황은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과 주택조합의 설립을 촉진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1891년 필립스(G. Philips)는 아인트호벤(Eindhoven)에 소규모의 전등공장을 설립하였고, 이 회사는 급속도로 발전으로 보게 되었다. 그는 당시 대부분의 기업가들이 공유하고 있던 가족주의적 경영방식에 따라서 회사와 관련한 대부분의 일들을 총괄 지휘하였다. 몇 가지 사례를 예

외로 하더라도 네덜란드 산업화는 영국, 독일, 벨기에와 비교하여 지연되었고 집중적으로 진행되지도 못하였다.

다양한 지역요인 중의 하나로 1863년 이전의 수입 휘발유에 대한 물품세를 들 수 있다. 또한, 효율적인 운하 시스템에 대해 폭넓은 신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철도건설에 대해서는 호의적이지 못하였다. 그리고 값싼 영국 상품들이 네덜란드 시장에 범람한 것도 하나의 이유였다. 산업화에 있어 필요 불가결한 농업기술의 개선은 1878년부터 1895년 사이에 일어난 유럽의 농업감소로 빛을 보지 못하였다. 이런 영향은 특히 네덜란드에서 치명적이었다. 영국은 살아있는 가족의 수입을 금지했고 독일에서는 비스마르크(Bismark)가 자국에 대한 농업 보호정책을 펼치고 있었다<sup>19)</sup>. 그 중에서 가장 큰 피해는 북미로부터 값싼 곡물이 수입되는 결과를 가져와 네덜란드산 곡물수요는 저하되었다. 따라서 도시의 대규모 인구 유입이 이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당시 유럽의 모든 도시 인구는 미국보다 더 급속도로 증가하였다<sup>20)</sup>.

특히 네덜란드의 인구증가는 두드러졌으며 특히 1830년부터 1896년에 걸친 암스테르담의 인구증가율은 240%에 달하였고, 그 밖에 할렘은 286%, 로테르담은 347%, 그리고 아넴은 367%로 급속도로 증가하였다<sup>21)</sup>. 도시의 폭발적인 인구증가는 19세기 열악한 주거환경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계속되는 도시의 확장은 주택건축에 있어서 건축적, 계획적 개선의 배경이 되었다. ■

13) Lambert, The Making of the Dutch Landscape, p.256

14) I. J. Brugmans, De arbeidende klasse in Nederland in de 19e eeuw, 1812-1870 (Utrecht, 1973). 이 책은 기초관련 연구로서 당시를 살펴보는데 필요하다.

15) Lambert, p.275.

16) Brugmans, p.42.

17) Brugmans, p.77.

18) Lambert, p.277; Hengelo'sche Bouwvereniging, Tuindorp Het Lansink (Hengelo, 날짜 없음)도 참조할 것.

19) Lambert, p.262

20) Bauer, Modern Housing, p.11

21) J. Th. W. Willemsen, De Volkshuisvesting Arnhem 1829-1925 (Arnhem, 1969), p.5